

가계부채 눈덩이...대출규제 당장 시행

집단대출 소득 확인 두달 앞당겨...보증 2건 제한 내달 적용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상환능력 심사 연내 도입키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급증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앞서 발표했던 대책들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당초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집단대출 신청자에 대한 은행의 소득 확인 의무가 즉시 시행되며 또 기존 대출정보를 고려해 신규 대출 규모를 산정하는 총체적 상환능력(DSR) 심사도 올해 중 도입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구매 비수기임에도 최근 빠른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지난달 25일 내놓은 정부대책의 후속조치를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8·25 대책 가운데 집단대출을 신청한 개인에 대한 소득확인은 11월 세제개정에

앞서 행정지도로 먼저 시행에 들어갔다.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 건수를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합쳐 총 2건으로 제한하는 방안은 다음 달 1일부터 곧바로 적용한다.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앞당긴다. 토지·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계획보다 한 달 앞당겨 다음 달부터 강화하고,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때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4분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신용대출 심사 시 다른 대출정보를 취합해 차주의 총체적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심사 시스템은 당초 1월 시행 계획을 앞당

겨 올해 중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공동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출유형 및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동향을 모니터링해 부실 위험이 높은 분야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또한 필요시 비상대응방안(컨틴전시 플랜)을 미리 마련하되 시행 여부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기로 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해서는 협력업체나 회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금융위·금융원으로 구성된 금융시장 비상대응반을 구성해 협력업체 상황을 일일 단위로 점검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기존 대출 및 보증의 경우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해 주고,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건설한 중소·중견기업에는 신·기보가 특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우리는행 매각과 관련해서는 이달 23일 까지 투자의향서(LOI) 접수를 마감하고 11월 중 입찰을 마감해 올해 안에 주식 양도 매각 절차를 완료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생활지원법에 따라 미소금융·햇살론·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해 관리할 서민금융진흥원은 예정대로 법 시행일에 맞춰 23일 출범할 예정이다.

한편 임 위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로부터 의견 수렴한 영업환경 개선건의를 검토한 결과, 금융투자업자의 선별환 포지션 한도를 '직접영업일부터 과거 1개월간 산술평균 잔액'으로 관리할 수 있게 바뀌 외국환은행과 형평성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자금거래 실제 소유자 확인 면제 대상 유흥업·노숙·소유 등으로 확대하고, 경영업무 신고 때 은행법상 규정된 첨부서류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대성기자 bigkim@연협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60.08 (+21.77)	↓ 금리 (국고채 3년) 1.31% (-0.02)
↑ 코스닥 679.49 (+2.58)	↓ 환율 (USD) 1105.10원 (-12.10)

지역 中企 절반이 명절 자금난

불황에 매출 감소·대금 회수 지연 심화

추석을 앞둔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10곳 중 5곳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본부장 김형락)는 최근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 추석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추석대비 자금사정이 '곤란'하다는 응답은 49.0%로, '월할'하다는 응답 6.0%를 크게 웃돌았다.

자금사정이 곤란한 원인(복수응답)으로는 매출감소가 81.6%로 가장 많았고 판매대금 회수지연(30.6%), 납품단가 인하(30.6%) 순으로 조사됐다.

매출감소 때문이라고 응답한 기업 중 제조업(81.8%)과 서비스업(66.7%)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내수부진과 소비위축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이 곤란한 이유는 '보증서 요구'(42.9%)와 '매출액 등 재무제표 위주 대출관행'(42.9%)이 가장 많았으며 '부동산 담보 요구'(21.4%), '신규대출 기피'(16.7%), '고금리'(13.1%)가 뒤를 이었다.

광주·전남 중소기업은 올 추석을 보내기 위해 업체당 평균 2억208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중 부족한 자금은 1억5000만원으로 필요자금 대비 45.5%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상여금 지급예정 업체는 61.4%로, 상여금 지급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4.0%포인트 감소했으며 상여금 지급수준도 작년(1인당 59만9000원)보다 오른 62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김형락 본부장은 "광주와 전남 지역의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여신한도를 낮추고 대출한도를 증액해 현실에서 체감할 수 있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베를린 가전 전시회 삼성관 '북적' 지난 2일(현지시간)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IFA2016'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된 제품을 관람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롯데, 1300명 공채

오늘부터 38개 계열사 참여

롯데그룹이 6일부터 하반기 신입사원, 인턴을 공개 채용한다.

채용 규모는 신입 공채 사원 950명, 동계 인턴 350명 등 모두 1300명 수준이다. 식품·관광·서비스·유통·석유화학·건설·제조·금융 등 분야에서 38개 계열사가 이번 채용에 참여한다.

지원자는 6일부터 20일까지 롯데 채용 홈페이지(http://job.lotte.co.kr)를 통해 지원서를 내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이후 서류심사, 엘-탭(L-TAB)·인성 및 적성검사, 면접 등을 거쳐 11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롯데는 이번 채용에서도 능력 중심, 여성·장애인 채용 확대, 학력 차별금지 등의 '열린 채용'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11년 롯데는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지원 가능 학력 범위를 '고졸 이상'으로 넓혔고, 작년부터 사원·수상경력·정보통신(IT) 활용능력 등 직무와 무관한 항목들을 입사지원서에서 뺐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공채에서는 롯데월드·대흥기획·롯데렌탈·롯데리아·롯데슈퍼 등 13개 계열사의 경우 지원자들이 자율복장으로 면접을 치른다. 동계 인턴 모집은 11월부터 시작된다.

전형 과정은 신입 공채와 같고, 롯데는 예년보다 인턴의 정직원 전환율을 높일 방침이다. 채용과 연계된 인턴의 순수하게 직무 경험을 쌓는 데 도움이 되는 '직무 경험형 인턴(가칭)' 제도도 신설, 추가로 인턴을 뽑는다. 이 유형 인턴의 실습은 방학 기간을 활용해 4주간 진행된다. 급여와 차우는 기존 인턴과 같다.

/연협뉴스



해양도시가스 협력사 워크숍

해양도시가스(대표 김명환)는 지난 2일 광주 소촌동 인력개발원에서 협력사 임직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협력사 합동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안전한 시공과 견실한 품질 확보라는 주제로 관리협력사 평가 틀변경 내용, 방공·시방서·현장 시공 기준 변경 내용, 협력사 공사 현장 시공 사례 등 시공 현장에서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는 데 역점을 뒀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규호 검사 1부장과 이주승 팀장이 참석해 '가스안전관리'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외에 협력사의 애로점과 각종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와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양도시가스 오광호 상무는 "협력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무사고 안전 시공과 품질 확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워크숍과 함께 대화를 통해 발주처와 협력사가 함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전남 65세 이상 고령자 급증...15년새 22만명 ↑

올 광주 11.6%·전남 22.4%...2040년 28.9%·41.1% 전망

광주와 전남의 65살 이상 고령인구가 각각 11.6%와 22.4%를 넘어선 가운데 오는 2040년에는 광주 28.9%, 전남 41.1%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5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광주·전남 고령자의 삶' 자료에 따르면 올해 광주 지역 65살 이상 인구는 11.6%, 전남은 22.4%로 집계됐다.

올해 광주지역 65살 이상 인구는 17만 6000명(11.6%)으로 지난 2000년 보다 10만 명 증가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번째로 2040년에는 28.9%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광주지역 65살 이상 고령자 성비(여자 100명 당 남자 인구수)는 74.0명으로, 오는 2040년에는 85.1명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또 15~64살 인구 100명 당 노년부양비는 15.9명으로 2030년에는 33.2명까지 늘어난다. 유소년 인구 100명 당 65살 이상 인구를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는 올해 광주가 76.1명으로 나타났다. 2022년 이후에는 유소년인구를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전남지역 65살 이상 고령인구는 39만3000명(22.4%)으로 지난 2000년에

비해 12만1000명 증가했다. 오는 2040년에는 41.1%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50~64살 준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22.7%인 39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65살 고령인구의 성비(여자인구 100명 당 남자의 수)는 64.9명으로, 2040년에는 81.8명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전남도 노년부양비는 34.6명(전국 18.5명)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살 인구) 2.9명이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다. 노령화지수는 175.2명(전국 99.5명)으로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를 크게 앞질렀다. 전남지역 고령자 가구는 26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6.1%를 차지했다.

/김대성기자bigkim@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신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Step 1. 방수장리
Step 2. 단열방수시트
Step 3. 외벽아트패션시트

5년 이상 불로 가압해도 물이 새지 않고
먼지 들어가지 않는 신희 동양시트 특허

실제시공현장
충북 옥천문화원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장점

-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 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건축 내외장재 패턴디자인이 찬 엔디나외의 클래식 디자인!
-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헐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만 된다고요?
20년을 가는데!!!

2중외벽 단열방수

냉난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6년 무상 A/S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